

건축문화 사랑방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9.06.115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02 시론

건축 인허가, 심의, 사업승인의 AI 시대

03 종합

사랑에서 _ 주민참여

법령소식

건축사 만평

04-05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2019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전주시건축사회, 회원 친목 행사로 건축문화탐방 진행
전북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지원

06-07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임원단,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회 응원 나서
광주 광산구, 건축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본지 창간 1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 및 본격적인 사업 추진 나서

08-09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점검 회의 참석
전남건축사회, 2019년 상반기 건축사 실무교육 진행
전라남도, 오는 6월 13일 계약심사부서 워크숍 개최

10 작품소개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공공분야) 은상/동상 수상작

11 종합뉴스

광주건축사회 가족과 함께하는 광주건축사회 한마당 페스티벌
대학뉴스 _ 전북대학교 한옥교육, 장애인 대안교육이 되다
학생기고 _ 아쉬운 중간평가를 뒤로하고

12 독자광장

책 소개 _ 의식의 기원
세상사는 느낌 _ 건축하기 위한 마음가짐...
한 편의 시 _ 땅따먹기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열람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건축 인허가, 심의, 사업승인의 AI 시대



이창율 논설위원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 조선이공대학교수
- 조선대겸임교수
- 광주건축사회 회장
-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창립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부회장
- 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감사

■ 알고리즘에 의해 조합되는 현대사회

알고리즘Algorithm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절차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건축사는 거대한 알고리즘의 체계 속에 살고 있으며 건축사협회는 알고리즘에 의해 조합되는 단체이다. 오늘날 알고리즘에 가장 열광하는 사람들은 정보통신업계에 몰려 있다. 이른바 '엔지니어링의, 엔지니어링에 의한, 엔지니어링을 위한 문화'를 갖고 있는 구글의 알파고, 아마존 알렉사, GE 프렉디스, IBM의 왓슨이 선두 그룹에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은 신이 아니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영역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다.

■ 알파고 AI의 학습 효과

알파고AlphaGo는 딥러닝DeepLearning 방식을 사용해 바둑을 익힌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나로 자율학습Unsupervised을 통해 컴퓨터가 스스로 패턴을 찾고 학습해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며 대신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분석하며 학습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커제 9단과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의 대결 이후 알고리즘을 개선한 2.0버전이다. 알파고 2.0은 TPU(Tensor Processing Unit)를 사용해 전보다 빠르게 학습할 수 있다. TPU는 구글에서 딥러닝을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 전용 하드웨어다. 또한 10만여 개의 바둑 기보를 바탕으로 학습했던 기존 알파고 1.0과 달리 기보 없이 스스로 바둑을 학습한 것도 2.0의 특징이다. 한편 딥마인드는 알파고의 AI 기술을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신약 개발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료계, 금융계, 법조계, 건축계 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디자인, 스마트시티 시대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대신 기존 인프라의 활용을 통해 저비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시티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선진국·신흥국 모두 도시혁명의 새로운 모델로 스마트시티를 추진,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특히 아시아 등 신흥국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급격한 도시화 문제 해결과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 건축 인허가, 인증, 심의, 승인 과정의 알고리즘

심의과정의 알고리즘은 건축, 경관, 도시, 교통, 지구단위, 개발 행위, 문화재, 소방, 구조 등이 있다. 이에 따른 알고리즘은 ①에너지절약설계기준 ②에너지소비총량제 ③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건설기준 ④공동주택소음방지대책 ⑤건강친화형주택건설기준 ⑥결로방지설계기준 ⑦범죄예방건축기준 ⑧장수명주택인증 ⑨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 ⑩녹색건축인증 ⑪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⑫제로에너지빌딩인증 ⑬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 ⑭지능형건축물인증 ⑮일조환경분석 ⑯교육환경평가 ⑰저영향개발사전협의제 ⑱수질오염총량관리제 ⑲빛공해방지심의 ⑳지하안전영향평가 등 20개의 가짓수가 있다. 이 절차 기간은 425~480일(FKI보고서)이 소요된다. 알파고 AI의 알고리즘 가짓수 361!은 인간의 단위로 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2.6×10^{845} 의 무량대수이다. 이에 비해 건축 관련 법, 령, 규칙, 조례와 각종 심의, 자문, 인증, 협의 등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다 합한 가짓수의 알고리즘은 1만 개도 안 된다.

■ 인허가, 각종 심의 AI 도입

협회 회장에게 제언한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심의 받고 수술하지 않으며 판사는 입회서기에게 심의 받고 판결하지 않는다. 건축사는 언제까지 무자격자에게 심의 받고 인허가와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지금이 바로 인간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주지 않는 방대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스스로 분석해 주는 알고리즘 AI에 의해 인허가, 심의, 사업승인을 받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시대의 경쟁력 있는 정책을 협회가 견인해야 할 때이다.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4항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 “한국건축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이미 입법이 되어 있다.

■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협회

한국건축규정을 정부와 협의·준비하여 협회가 개발한 인공지능 AI가 대신하면 건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폐청산의 과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회에서 제공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인허가,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모든 건축사가 능동적으로 정회원이 되어 질 것이다. 더 나아가 큰 수익사업으로 회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 주는 협회가 될 것이다. 최소 14~16개월 걸리는 각종 심의와 사업승인 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되니 자율주행차를 타게 되는 대한건축사협회의 밝은 앞날이 될 것이다. **건축사의, 건축사에 의한, 건축사를 위한** 협회의 밑그림을 제언한다.

크리틱 / 송 건, 전영철, 김의중, 조정래 건축사

같지만 다른카드, 아키디자인

- 작업효율 3배 향상**
지겨운 라인편집 작업 ▶ Direct Draw!
짧은 면적산정/도면수정 ▶ Auto Revision!
단순반복 출력, PDF 변환 ▶ 1Click!
- 쓰던 방식 그대로**
기본 2D 카드 기능 지원
리슘, 3d Party 기능 기본 탑재

MIDAS ARCHIDESIGN Premium

출시기념 프로모션

60만원(1년) → 50만원(1년) + 3개월 추가제공

상담문의 1899-9260
이벤트 상세 www.midasCAD.com

사랑에서 _ 신다섯 번째

주민참여

처음으로 '주민참여'라는 단어를 접하게 된 것은 약 25년 전, 청주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석사학위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다. 당시 지도교수님께서서는 건축, 도시계획, 농촌 마을, 문화재 보존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현안을 주민참여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기회가 주어지면 직접 실행에 옮기시기도 하셨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익숙한 방식이 아니었기에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험적인 사례만 몇몇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것처럼 많은 경험은 아니었지만, 주민참여방식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끈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행정기관 혹은 전문가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보다 그 성과가 훨씬 더 내실 있고 튼튼하며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었다.

그 후로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주민참여 혹은 상향식 사업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오르내렸고, 근래에는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도시재생사업이다. 이제는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개발 지향적인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및 신도시개발사업 등과는 여러 측면에서 확실히 비교되는 사업이다. 사업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주체도 다르고, 추진하는 방식이나 과정도 상이하하며,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 차이점을 실감하기 힘든 것은 무엇 때문일까?

꽤 오랫동안 주민참여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관여를 해왔던 경험으로 볼 때, 우리 사회는 아직도 행정기관 혹은 전문가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감히 진단한다. 권위적인 자세를 버리지도 않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공직자, 사회적 책무보다는 돈벌이에 더 관심이 많은 전문가와 기업, 무관심과 방관에 익숙한 주민 등 사업에 관여하는 주체들의 태도와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어찌 다른 과정과 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제도와 사업은 그 성과를 누리는 이용자 혹은 소비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그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또한 그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거나 되살리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며, 주민들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주인 의식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수없이 많은 정황과 변수에다가 그동안의 경험까지 대입해 보면, 건축사는 주민참여방식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문가다. 이용자의 편의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고 건축주를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소통력, 국가에서 확인해 준 전문성, 공직자와의 수많은 협의 경험, 다양한 분야의 협력업체를 이끌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 게다가 가장 중요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력까지!

자문위원_서재형 건축사(archiseo@nat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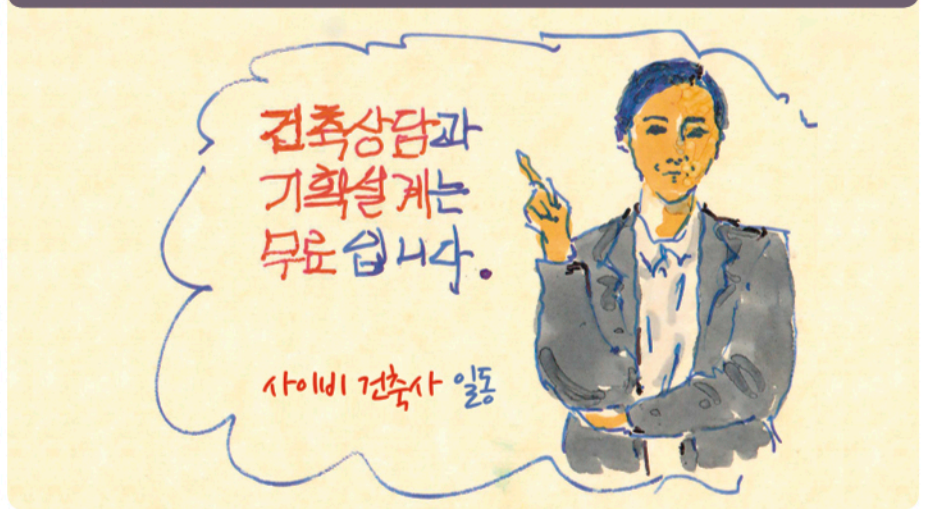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6월 건축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일부 개정·시행 알림

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29호)		
공포일자	2019.3.19.	시행일자	2019.6.20.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준주거·상업·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수소자동차 충전소 건축제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주거지역/중심·일반·유통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현행)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개정)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수소연료공급 시설은 제외한다) ○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제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개정)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신설)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 야영장이 수련시설 설치 시 야영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별도로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신설) 야영장 시설 • [중심·일반·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현행)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수련시설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현행) 수련시설(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수련시설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 초대편집인: 박홍근
- 편집인: 강동영
-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 자문위원: 서재형, 정영환
- 전담기자: 광승국
-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 편집위원: 정관성,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설혜순, 이원규, 정영진, 임현정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 간별: 월간
- 등록일자: 2010-01-25
-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주)마이다스이티 300,000원
- 법무법인 법가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여의동 근린생활시설

문병률 건축사
포럼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로 89
Tel. 063-227-0617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여의동 1148-17 외 1필지 / 대지면적 : 1,813.00㎡ / 건축면적 : 360.98㎡ / 연면적 : 1,288.88㎡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상 4층 / 구조 : SRC조 / 주요마감 : 고흥석, 스테이크플렉스

첨단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서호의 사옥으로 건축주의 건축에 대한 열의와 감각으로 보다 향상되고 현실적인 설계를 구현할 수 있었는데, 디자인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생각된다.

세련되고 하이테크한 이미지 컨셉을 목표로 시작된 과정에서 도로에 접한 폭 좁은 직사각형의 대지 조건은 가장 큰 난관이었지만, 철과 돌을 조형미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여 조망미를 살려주며 전면엔 건물을 배치하였고, 대지 뒤편에는 주차장과 함께 외부계단을 설치한 직원들의 휴게공간을 배치하여 디자인과 함께 실용성을 충족시켜 주었다. 회사전용 사옥으로 계획된 건물로 모두에게 편안하고 효율적인 공간이 되어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지상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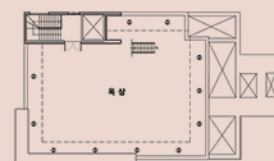
지상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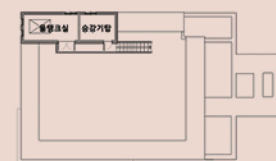
지상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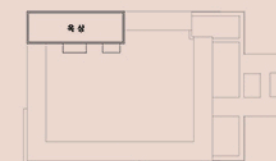
지상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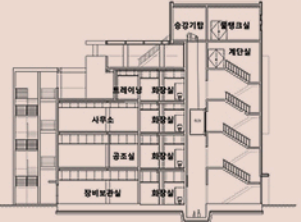
옥탑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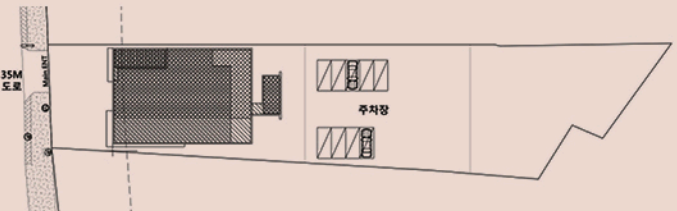
옥탑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횡단면도



배치도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전북건축사회, 2019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5월 18일 전주비전대에서... 전북지역내 건축사와 건축직 공무원 등 650여 명 참석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지난 5월 18일 전주비전대학교 인조잔디 구장에서 '2019 전북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라북도내 모든 시군 소속 건축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350여 명과 전라북도건축사회 건축사 200명 및 가족 100여 명 등 총 650여 명이 참석해 건축인 상호 간의 이해증진과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

또한 대외 인사로 전라북도 최용범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 의회 송성환 의장,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 김경선 전)순창부군수, 송기항 전)순창부군수, 최종엽 전)전라북도 주택과장도 참석하여 이날 체육대회를 빛냈다.

이길환 회장은 대회를 통해 "이번 대회가 전북도 모든 건축인들이 상호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어 건축 발전은 물론 전라북도 모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밑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올해 12회를 맞이한 체육대회는 축구, 줄다리기, 400m 계주, 레크레이션 경기에 이어 특별 코너로 가족 참가자들을 위한 마술공연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시건축사회, 회원 친목 행사로 건축문화탐방 진행

지난 5월 31일 대전광역시 일원 우수 건축물 탐방... 회원 50여 명 참가



전주시건축사회(회장 이태원)는 지난 5월 31일 대전광역시 일원의 우수건축물을 탐방하는 회원 친목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및 직원 등 50여 명이 참가했으며 2016 대전시건축상 금상을 수상한 조이마루 B/D와 화폐박물관, 뿌리공원 등을 탐방했다.

이태원 회장은 "이번 건축문화탐방이 회원들의 친목과 더불어 전주시 건축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는 행사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지원

도내 축산 농가 4,133농가 중 1,116가구 완료... 전북건축사회 포함 협의체 구성도

2014년 3월 24일 「가족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작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치가 4년 6개월간의 시행 기간을 거쳐 이행완료기한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전라북도는 지난 6월 3일, 보도 자료를 내고 오는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받아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도내 축산 농가가 4,133농가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중 1,116농가는 이미 적법화를 완료하였고, 축량을 포함한 인허가 접수·설계도면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614농가이며, 약 9.7%에 해당하는 403농가는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축량을 진행 중이거나 아직까지 미진행 중인 농가 1,043농가 중 약 60%에 해당하는 616농가가 3개 시·군(정읍 285농가, 익산 197농가, 부안 134농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관할 시·군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보다 집중적인 행정지원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는 도내 모든 축사가 기한 내 적법화 추진을 완료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군, 유관기관, 지역축협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수산식품국장을 반장으로 행정(축산·건축·환경부서), 유관기관(한국자산관

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건축사회, 농협 등과 함께 도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미진행 농가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 농가의 직접적인 원인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해결방안)을 제시 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도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북대, 국토부로부터 '2019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기관에 선정

총 4억 5천만 원 지원받아... 6월부터 본격적인 '한옥설계교육' 진행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 교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13일 발표한 한옥 전문인력양성사업에서 전북대학교는 대한건축

사협회, 전남대학교와 같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전북대학교는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을 목적으로 총 4억 5천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건축사와 예비건축사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6개월 과정으로 이룬 수업은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에서, 실습교육은 고창캠퍼스에서 진행하며, 교육내용은 한옥과 관련된 특강, 한옥이론교육, 한옥실습교육, 한옥마을 및 건축 답사, 한옥시공실습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는 전국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한옥건축 체험캠프'를 비롯해 어린이 한옥캠프, 외국인 한옥캠프, 대학생 한옥캠프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 과정에 국내 유일의 한옥전공을 설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창 캠퍼스에서는 최고 수준의 한옥건축실습장을 설치해 한옥기능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한옥을 호주, 불가리아에 등에 수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어 한옥의 세계화도 모색하고 있다.

전북대 건축공학과 대학원생, 한국주거학회 신진연구자상 수상

박사과정 김소라 대학원생, '청년 혼족의 생활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의 programming에 관한 연구'로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생이 지난 4월 말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관에서 개최된 '2019년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진연구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 주인공은 박사과정의 김소라 대학원생으로 이 상은 한국주거학회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계획이 우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원생 2명을 선발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김소라 대학원생은 '청년 혼족(1인 가구)의 생활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의 programming에 관한 연구'로 과제를 제출하여 선정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전북대학교 주변의 1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혼족의 생활특성을 조사하고 이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분석하여 이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거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시의성이 적절하고 연구내용이 치밀하다는 호평을 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소라 대학원생은 "처음 시행되는 신진연구자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 연구를 잘 진행하여 우리나라 혼족의 주거문화를 개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전북 회원동정

• 변경(상호)

- 김건욱 건축사 / KOK 건축사사무소 → (유)케이오케이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윤승환 건축사 / 풍경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68

- 박승용 건축사 / 도원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선화로 347-1

• 결혼

- 최영배 건축사 / (유)영창 건축사사무소 / 아들 결혼 - 05월 26일(일)

- 김동균 건축사 / (유)토우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06월 15일(토)

• 부고

- 김정두 건축사 / 두성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05월 02일(목)

- 정석균 건축사 / 정석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6월 04일(화)

- 조영수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장원 / 빙부상 - 06월 06일(목)

(주)메종 사옥

안길전 건축사 /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광주 남구 서오층석탑1길 7-1
 Tel. 062-233-7151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5-7 / 대지면적 : 619.00㎡ / 건축면적 : 327.43㎡
 연면적 : 997.24㎡ / 건폐율 : 52.89% / 용적률 : 139.47%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상 5층



광주건축사회 임원단,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응원 나서
 전남일보사 주최로 5월 24일 광주공원 앞에서 열린 캐릭터 수리달이 수영대회 지원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 임원단이 2019년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과 응원에 나섰다.
 지역일간지 전남일보사 주최로 지난 5월 24일 광주공원 앞에서 개최된 수영선수권 대회 마스코트 수리달이 수영대회에 후원과 함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통한 응원에 동참한 것이다.
 강현구 회장은 "세계적인 대회가 우리 광주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전문가 단체로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되며 200개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와 임원 등 7,000여 명이 참가하고, 경영·다이빙·하이다이빙·아티스틱 수영·오픈워터 수영·수구 등 6종목에서 76개 경기가 진행되어 금메달 186개를 놓고 승부를 벌인다.

광주 광산구, 건축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광산구 지역 건축사와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 참석... 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논의도



광주 광산구는 지난 6월 4일 구청 2층 회의실에서 건축사와 건축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광산구 이정삼 부구청장과 황만주 국장, 광주건축사회 강석훈 부회장, 광산구협의회 정재한 회장, 광산구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들과 건축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공동 노력 방안 수립과 공무원들의 친절한 민원 업무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들에 대해 논의됐다.

본지 창간 1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 및 본격적인 사업 추진 나서
 추진위원장에 서재형 건축사... 총 9인으로 구성하고 지난 5월 28일 첫 회의 가져



본지 건축문화사랑이 올해 11월 창간 1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기념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지난 5월 27일 광주건축사회 소회의실에서 서재형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박홍근

| 광주건축사회 2019년도 |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공지

건축사법 제30조의2, 영 제30조 규정에 의거 광주건축사회 2019년도 건축사실무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건축사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교육 신청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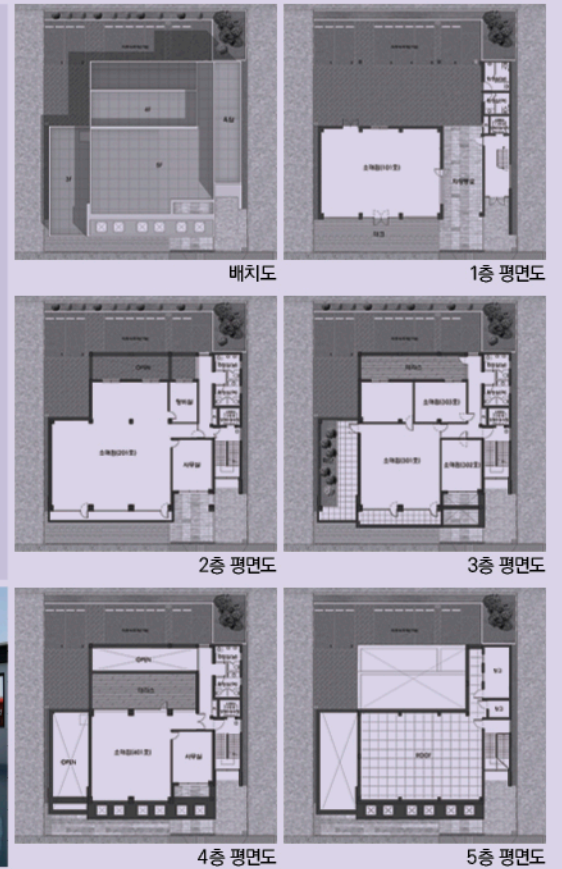
- (1) 실시근거 : ①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및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건축사의 실무교육)
- (2) 실무교육 계획

월	일시	종류	과목	강사(예정)	장소	교육시간	교육비
6월	25일(화) 14:00~15:00	윤리	카네기인간경영리더십	김장길 원장 카네기인재개발원	5층 대강당	1시간	10,000원
	25일(화) 15:00~18:00	전문	에너지절약계획서실무	박일수 센터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3시간	45,000원
7월	23일(화) 14:00~16:00	전문	BF인증제도와 인증기준의 이해	백종근 인증실장 한국환경건축연구원		2시간	30,000원
	23일(화) 16:00~18:00	전문	토질조사 및 사고사례 대처방안	허신영 토질기술사		2시간	30,000원

- (3) 교육신청기간 : 해당 교육일 3주 전부터 신청가능
- (4) 출석인정
 - ① 매 과목 교육 시작 후 14분까지 입실 완료하여야 교육이 인정되며, 15분부터는 지각 처리되어 교육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교육비 환불되지 않음)
 - ② 매 과목 교육 종료 후에는 반드시 강의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출석체크
 - ① 건축사등록원 등록카드 또는 QR코드(교육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에서 발급)를 이용하여 교육장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 스캐너로 스캔하여 출석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6) 수강신청 절차
 -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www.kiraeb.or.kr) 접속
 - ② 협회 ID / PW 로 로그인
 - ③ 교육과정안내 : 실무교육 선택 ⇒ "건축사선택"에서 "광주건축사회" 선택
- (7) 기타문의사항은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대지 위치는 과거 호남의 최대 관문이자 광주의 랜드마크였던 광주역과 지역 발전에 공헌한 광주건축사회관이 자리한 곳이다. 도시 팽창에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이 대지에 도시 이미지를 더하고자, 외부의 노출 콘크리트 패턴의 세련미와 회색의 차가움을 표현하여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었고, 외부와의 프로세스가 형성 되도록 열린공간을 창출하고자 설계하였다.”



초대편집인, 정명환 전임편집인, 강동영 현임편집인, 광주·전남·전북 지역별 부편집인과 편집위원 등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발족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간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큰 틀에서 올해 11월 전에 세미나 개최와 기념식 사업, 합본제작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서재형 추진위원장은 “광주·전남·전북건축계를 대표하는 건축문화사랑이 올해로 창간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뜻깊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건축계의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건축문화사랑은 2009년 11월,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창간되었다.

광주광역시, 제1회 경관아카데미 광주건축사회관에서 진행

지난 6월 7일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함인선 총괄건축가 강연 등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2019년 제1회 경관아카데미가 지난 6월 7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 광주지역 건축사 및 건설기술자,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광주광역시 함인선 총괄건축가의 ‘광주 도시-건축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 및 아트도시 정책과 경관 정책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다.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지난 4월 23일 광주시로부터 초대 총괄건축가로 위촉되어 광주시의 건축·도시공간정책 및 전략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공공건축 및 도시공간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을 맡고 있다.

광주건축사회, 회원사에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확대시행에 따른 반대의견 게시 요청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게시 및 항의 전화 등 적극 문제 제기 협조

광주건축사회는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로 확대 시행 등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사안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발표(19.5.8.)된 것과 관련하여 그대로 시행할 경우 건축사사무소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회원사에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지난 5월 23일 전 회원 회원알림을 통해 확대시행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근무환경 악화 및 직원 이탈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등 여러 부작용들을 나열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전자민원 게시 및 항의 전화 등 적극 문제 제기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해당 내용과 문제 제기 방법 등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05308번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건축사들이 무분별하게 대거 배출되면 질적 수준을 떨어뜨려 자격대여 증가, 저가 덤핑수주가 더욱 심화되면서 궁극적으로 현 종사자와 배출 건축사 모두 공멸의 길로 가는 심각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관계자의 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법규와 관련된 피해사례 조사

피해사례 조사서, 7월 31일까지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 가능...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위원장 손근익)에서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건축관계자(발주청·인허가 기관 등)의 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법규와 관련된 회원의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원사들이 업무수행 중 대처하기 어려운 법률 분쟁 및 소송 문제에 대한 피해사례조사를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건축사회는 전 회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 205618번을 통해 확인하여 기한 내에 조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담당 : 여외란 과장 / Tel : 02-3415-6851)로 문의하기 바란다.

광주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강기석 건축사 / 해송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목련로2번길 29-64
- 이원일 건축사 / 이엘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태봉로 41, 202호
- 오성현 건축사 / (주)미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대남대로 267, 303호
- 정 훈 건축사 / 정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대남대로 317, 5층

法家 공중임가 법무법인 법가

▶ 공중업무, 송무업무, 등기업무, 신청업무

- 변리사
- 대한변협 이사, 청년특위 위원장
- 광주변호사회 총무이사
- 법정문화발전협의회 위원
- 광주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대표변호사
박철 / 朴哲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78번길 7
T . 062-233-8071
F . 062-223-5376
E . bubga8070@gmail.com
www.법가.com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점검 회의 참석

지난 5월 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회의와 5월 23일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회의에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이 전라남도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일 전라남도 영상회의실에서 정부 주재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점검 영상회의와 5월 23일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지역협의체 운영실태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회의에 참석했다.

먼저 5월 2일 열린 회의는 세종청사 영상회의실과 전라남도 관내 22개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동시에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과 국조실, 행안부, 국토부, 농축산식품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였고, 전남도에서는 박병호 행정부지사와 축산지원·건축관리·환경관리팀·농협전남지역본부 관계 공무원, 축산산업단장과 도내 시·군 부시장·부군수가, 전문가단체장으로 조연준 회장을 비롯해 시·군 건축사 등이 함께했다.

본격적인 회의에서는 농축산식품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도내 22개 시·군 별로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 발표와 관계부처 및 전문가 단체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

5월 23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농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을 비롯해 전남도 축산정책과와 도내 8개 시·군 축산과 공무원, 지역축협 관계자, 전남건축사회와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등 기관 인사가 참석해 도내 8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축산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원활한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회 차원에서 전남도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남건축사회, 2019년 상반기 건축사 실무교육 진행

지난 5월 28일 무안과 6월 5일 순천에서... 각각 전문교육 4시간 인정 강연 열어

전남건축사회는 지난 5월 28일과 6월 5일 2019년 상반기 건축사 실무교육(전문교육)을 진행했다.

먼저 5월 28일 전남 무안군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건축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단열 설계 및 시공기술’이란 주제로 (주)스타빌 엔지니어링 김웅희 대표



의 강연과 ‘도시재생사업의 진단과 건축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김종익 센터장의 강연을 진행했다.

6월 5일에는 전남 순천시 조례호수도서관에서 건축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일한 강연을 진행하며, 2019년 상반기 건축사

실무교육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전남건축사회는 9월이나 10월경에 전문교육 4시간 인정교육을, 12월경에 윤리교육 1시간 인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오는 6월 13일 계약심사부서 워크숍 개최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도내 시·군 관계 공무원과 전남지역 건축사 등 대상

전라남도는 오는 6월 13일 전남 보성 다비치콘도 제암홀에서 계약심사부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내 시·군 공무원을 비롯하여 건축사, 출연기관·용역·시공·자재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 계약심사 기준설명과 도·시·군 사례 발표, 전문가 특강 등이 열릴 예정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계약심사 기준 설명과 심사 방향에 대한 내용이 거론될 예정임에 따라 도내 건축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동신대 건축공학과 등, 2019 캡스톤디자인 성과발표회 개최

지난 6월 4일 동신대 중앙도서관 5층 전시실에서 개막하고 3일간 전시 진행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학과장 김미선)와 도시계획학과, 조경학과 등의 캡스톤디자인 성과발표회가 지난 6월 4일 대학 중앙도서관 5층 전시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 개막식에는 광주전남지역 건축계 인사들을 비롯해 도시계획 및 조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캡스톤디자인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배웠던 이론적 지식을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산학협력 팀 프로젝트로 알려졌다.

이 프로젝트 대부분의 작품이 광주와 전남지역 현안을 주제로 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캡스톤디자인 성과발표회는 동신대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지원을 받아 각 학과의 성과물을 학과와 산학 간 공유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중동 수석치과
백재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인증현
전남 광양시 눈소1길 3-7, 2층
Tel. 061-793-8503

대지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 대지면적: 283.5㎡ / 건축면적: 167.22㎡ / 연면적: 571.36㎡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 규모: 지상 4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전남 여수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 발족하고 사업 박차

지난 5월 23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출범식 열어... 추진위원 총 20명



전남 여수시는 지난 5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추진위원은 총 20명으로 박물관, 역사, 건축,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 시의원 2명, 시민사회단체 8명, 공개모집 시민 2명, 당연

직 공무원 1명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박물관 건설과 전시공사, 추진 상황 점검·평가, 유물 수집·제작·보존·연구와 평가 등을 심의·자문하게 된다.

특히 박물관 개관 전까지 전시유물 확보를 위해 범시민 유물 기증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날 여수시는 추진위원에게 박물관 추진상황과 위원회 운영 방향을 설명했으며 추진위원들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김병호 이사장을 위원장에 선출했고, 박물관 건립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앞서 시는 조례에 따라 추진위원 18명을 구성했고, 시민대표 2명은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선발했다.

여수시는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이순신공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6,300㎡ 규모로 박물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착공은 2020년 10월, 개관은 2022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 광양시, 국토부 주관 '소규모 재생사업' 2개소 최종 선정

광양읍 덕산마을, 태인동 도촌마을 선정, 총 8억2천만 원 사업비 확보

전남 광양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상반기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광양읍 덕산마을과 태인동 도촌마을 2개소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포함한 총 8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제안하고, 도시재생 과정에 직접 참여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마중물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쇠퇴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1년간 국비, 지방비가 각각 50%씩 투입된다.

'함께할까요? 도심 속의 외로운 섬 덕산마을'을 주제로 선정된 광양읍 덕례리 덕산마을에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안전 예방길과 안심 쉼터 등 골목길 정비사업

과 생활 원예 전시회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 '최고의 김! 명성 되찾아 나선 도촌마을'을 주제로 선정된 태인동 도촌마을 6통에는 4억2천만 원을 투입해 김부각 생산공간 조성 및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브랜드 상품화, 홍보 및 판촉 판매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남 목포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대상 건축물 197개소, 6월 14일까지 1차 육안조사 후 2차 정밀조사

전남 목포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75개소, 일반건축물 122개소 등 총 197개소로 오는 6월 14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로 육안점검을 통해 위험요소가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서 2차로 전문 구조기술사가 정밀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 기울기와 주요 부재 간 접합부 안정성 및 변형 여부, 벽체 및 개구부 수직 경사균열 여부, 주변 지반 침하 및 용기, 바닥 포장 균열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설물의 안전 위험도가 클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 안전 조치를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목포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건축물 DB 구축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소유자가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전남 회원동정

•입회

- 서은숙 건축사 / 다담 건축사사무소 / 전남 구례군 수달생태로 21, 103호
- 장해용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해남 / 전남 여수시 도원로 254, 2층
- 김현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원 / 전남 여수시 시청서3길 13-9

•변경(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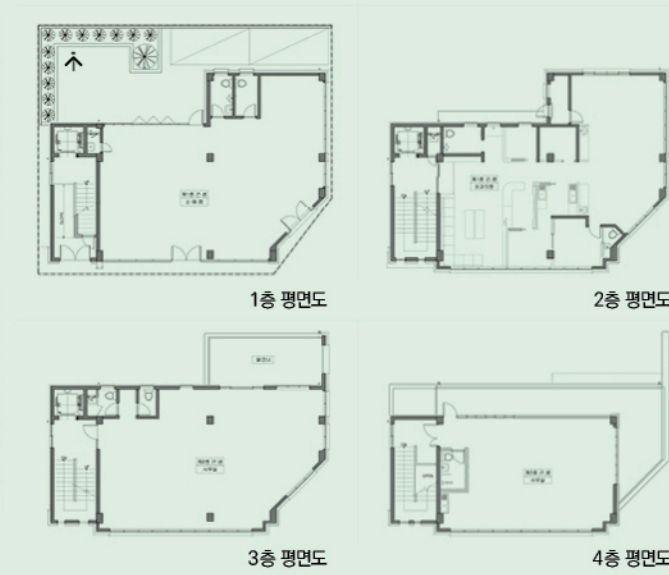
- 배중수 건축사 / 한려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5, 골든타워 10층
- 김성수 건축사 / 한양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5, 골든타워 10층
- 이승봉 건축사 / 이담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로 3, 202호
- 백재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인중현 / 전남 광양시 눈소1길 3-7, 2층

•결혼

- 탁기봉 건축사 / 유일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05월 25일(토)
- 설혜순 건축사 / 미건 건축사사무소 / 본인 결혼 - 07월 06일(토) 오전 11시 목포 상그리아비치호텔

•부고

- 강인수 건축사 / 세원 건축사사무소 / 본인 사망 - 05월 23일(목)



인근에서 오랜 기간 성실함과 실력으로 치과를 운영해 온 건축주는 1층은 커피숍, 2층은 치과, 3~4층은 회계 사무소를 용도로 하는 설계를 의뢰해 오셨다. 2면이 도로에 면한 대지는 일조권을 적용받아 3층부터는 규모를 축소해가면서 적정 대수의 주차대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건축물의 용도상 이용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주면서도 형성된 지 오래된 가로변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가 고자 노력했다. 장방형의 붉은색 블록을 세로줄눈 없이 사용하여 가로 방향을 강조하고, 비정형패턴의 회색현무암으로 수직을 강조함으로써, 안정감을 주는 재료의 물성을 디자인상의 대비를 통하여 변화의 요소로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또한, 가벽을 설치하여 일조로 인한 규모의 변화가 3~4층의 안정감 있는 휴게 마당으로 형성 되도록 계획 하였다. 내·외부 시공 단계에서 각 분야의 작업자들과 많은 협의를 통해 디자인의 디테일이 반영되도록 노력한 의미 있는 작품으로 기억된다.



제19회(2018년)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공공분야) 은상/동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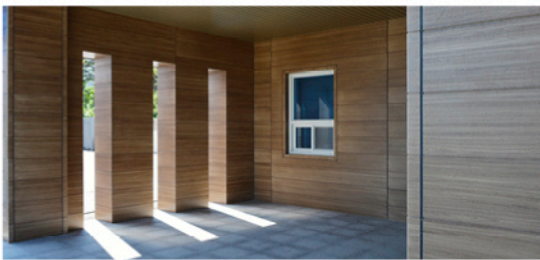


디디다 : 꿈을 향해 도약을 준비하다

은상

설 계 자 : 빙인섭 건축사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주)
 대지위치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132번지 외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 9,482㎡
 건축면적 : 1,735.94㎡
 연 면 적 : 5,211.97㎡
 규 모 : 지상 4층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존의 비좁았던 기숙동 방과 식당, 회의실, 강의실로 인해 더 많은 학생을 받지 못함에 있어 증축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시설과 식당, 체력단련장, 회의실, 강의실 등을 갖추어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기존의 노후된 기숙사를 학습공간으로 측면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학습공간과 기숙 공간의 연계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번 계획의 키포인트로 생각하고 저층부에 식당과 도서관을 조성하고 상부층에 기숙사를 배치함으로써 기능 분리를 최선의 방식으로 삼았다.



동상

설 계 자 : 유희완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dn)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길6 13-3
 대지면적 : 238.00㎡
 건축면적 : 131.95㎡
 연 면 적 : 287.59㎡
 규 모 : 지상 3층
 주 용 도 : 지역아동센터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 : 솔리드블록, 외단열시스템

신축 건물과 주변 환경(노후 건축물)과의 조화는 항상 도시적 관점에서 풀이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더불어 가파른 경사지를 해석하는 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었고, 결국은 1층과 2층에 각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기능을 분리하면서 최종적으로 대지에 순응하는 접근 형태를 결정하였다.

절제된 매스형태와 차분한 색채의 조합에 관하여 과업 완료 직전까지 고민했던 것 같다.

본 건물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위치하는 소규모 공공 건축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장난감을 대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며, 아울러 지역의 사랑방 역할로도 사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주시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사진으로 보는 '2019년 제7회 광주건축사회 가족과 함께하는 광주건축사회 한마당 페스티벌'



한마당 페스티벌 전체참여행사 및 단체사진



5개 구 회원 및 가족 180여 명 입장식

입장하는 회원들에게 답례인사

대회사 중인 강현구 회장

무진한 경품과 상품이 회원들과 가족들에게 골고루 수여됐다.

대회 우승은 청팀(동구, 북구, 광산구)에게 돌아갔다.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강현구)는 지난 5월 25일 동강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회원단합 행사인 '가족과 함께하는 광주건축사회 한마당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 회원 150여 명과 회원 가족 30여 명 등 총 180여 명이 참가했으며, 회원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를 비롯해 광주시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한마음 단합행사가 진행됐다.

강현구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5년 만에 개최하는 체육대회는 그동안 이어져 온 광주지역 건축사들 간의 끈끈한 우정을 재확인하고, 서로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함이다"고 말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 응집된 건축사들의 힘이 광주건축사회와 지역건축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구별 사무소 소재지로 청팀(동구, 북구, 광산구)과 홍팀(서구, 남구)으로 나눠 파도타기와 파도천리레이, 공굴리기, 징검다리 릴레이, 족구, 골프컬링, 줄다리기, 장애물 릴레이 등 다양한 체육행사가 열렸고, 치어리더공연과 초대가수공연 등 흥겨운 공연행사도 이어졌다.

참가회원과 가족 모두 이번 한마당 페스티벌을 계기로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건축사와 건축사회 위상을 제고하기를 희망했다.

대학뉴스

전북대학교 한옥교육, 장애인 대안교육이 되다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사업 '정읍 김명관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프로그램이...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가 운영하는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사업 '정읍 김명관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프로그램이 새로운 장애인 대안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4월 초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 한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말에는 일반인과 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대안학교 '전주 소재 토기장이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옥문화재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김명관고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 이야기, 김명관고택의 한옥체험, 정읍의 명품건축 답사, 한옥 익히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서 서로 돕고 밝게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감명을 주었다.

이들과 함께 참여한 한 선생님은 "향후에도 계속 신청하여 장애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에서는 이전에도 고창캠퍼스에서 자폐증상을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옥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못하던 장애인들이 교육을 마칠 즈음에는 다른 교육생과 농담도 하고 축구도 할 정도까지 발전하여 새로운 대안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남해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싶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가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생기고 _ 양민희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아쉬운 중간평가를 뒤로하고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에서는 지난 5월 21일 3공학관 3층 홀에서 졸업을 앞둔 5학년들의 졸업전시회 중간평가를 진행했다. 5명의 교수님들과 함께 전체 학년이 참관할 수 있는 오픈 크리틱 방식으로 진행했다.

지난 4월 1차 크리틱으로 2명의 학생을 제외한 16명의 학생들은 저조한 점수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였다. 많은 학생들이 사기가 떨어졌지만 1차의 평가를 바탕으로 5월의 중간평가를 위해 열심히 달렸다.

긴장한 탓에 연습한 만큼 좋은 발표를 못 해서 많이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다. 4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겪어야 할 상황이기에 불안감과 1년이 남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중간평가를 참관했다. 5학년은 1차 평가보다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2달이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앞으로 두 달 동안은 판넬 마무리 작업과 대지모형, 본 모형 작업이 남았다. 운이 좋은 5학년은 친한 후배들을 헬퍼로 먼저 데려간 상황이다. 5학년들은 아쉬운 중간평가를 뒤로하고 후회가 남지 않을 졸업작품전시회를 위해 전략을 잘 짜야 할 것이다.

책 소개 _ 이원일 건축사 / 이엘 건축사사무소 / 전남대·순천대 외래교수

의식의 기원

줄리언 제인스 저 / 김득룡 역 / 한길사 / 2005. 12. 10.



정신의 격변기이자 사춘기였던 대학 1학년 시절, 데모와 종교 활동에 열심이었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고등학생 시절의 과학적 궁금증은 신과 종교, 인간의 실체 등으로 관심이 이동하였습니다. 지금도 뇌와 의식 그리고 자아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 틈이 나는 대로 관련 서적을 읽어보곤 하는데, 10여 년 전부터 뇌와 의식의 본질에 궁금하던 차 줄리언 제인스가 쓴 '의식의 기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의 전문가이자 현대의 프로이트에 비견되는 저자는 의식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의식은 물질의 속성, 원형질의 속성, 경험, 추론, 판단의 한 부분 등)은 심리학 실험을 바탕으로 기각시킵니다.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반복적인 행태와 학습 등과 논리적 판단 및 결정, 운전과 같은 부분들이 모두 의식과는 별개로 뇌의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작동되는 것입니다.

즉 동물적 행위들의 복잡성이 더해졌을 뿐인 거죠. 새로웠던 첫 느낌, 경이로움, 자

신의 위치 등을 느끼는 순간을 기억해보면 단순한 경험인자를 넘어 자아에 대한 충만함을 느꼈음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습과 탐구 그리고 반복은 의식에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동시키게 되고 그게 바로 관습과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고 쌓여가며 살아가는 패턴이라는 물질 속으로 자신을 가만히 놓아둔다면 모든 사건들 속에서 새로운 생각과 창의적 부분이라는 '의식'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식은 솔직히 시스템화되어있는 사회에서 불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인간의 정신과 삶의 깊이의 성장을 견인한 것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나의 경험만으로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지 되문곤 했는데 연차가 쌓일수록 이러한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컨셉을 잡는 것조차도 새로움을 향한 탐구의 흥분을 원하기보다 기존의 경험들을 써먹는 경우가 더 빈번해졌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해가 갈수록 무의식적으로 예전의 경험을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바로 무의식의 흐름을 반대로 역주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책입니다. 항상 깨어있고 기존의 관습과 습관들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출근길과 반복되는 설계가 실은 엄청나게 다른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열려 있는 건축으로 가기 위한 한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사는 느낌 _ 김홍용 건축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건축하기 위한 마음가짐...

최근 영화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생충' 영화가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생충'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사회성·지역성 및 사회의 불편한 이슈를 영화화하여 관객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더불어 적절한 복선을 통한 흥미와 긴장감을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 저에게는 많은 여운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건축계에도 '프리츠커 건축상'이 존재합니다.

프리츠커 건축상은 1979년 미국의 호텔 체인 하얏트의 창업자 일족인 제이 프리츠커와 신지 프리츠커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축예술을 통하여 인류와 건축환경에 일관적이고 중요한 공헌을 한 생존 건축가에게 해마다 수여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최근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왕슈, 일본의 반 시게루와 이소자키 아라타, 칠레의 알레한드로 아라베나 등 지역성과 사회성, 그리고 생태환경을 강조하는 건축가들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축 활동은 사회성과 지역성을 강조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프리츠커 건축상은 일명 '스타건축가'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통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건축가는 왜 상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 가운데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이 최근 수상자들을 보더라도 이제는 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닌 '누구나'의 건축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 그리고 지형과 환경을 고려하며 더 나아가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 고민해야 하고 그 고민을 담아내는 건축은 새로운 가치가 될 것입니다.

'지역을 이해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을 고려하겠다'라는 지역건축가, 동네건축가로 활동한다는 것이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많은 시사점을 남기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수상의 영예와 같은 작업이지 않을까'라는 소소한 생각도 즐겁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 전라도의 지역성을 조금 더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감성을 가까이에서 느끼며, 서로 공유하고 가치를 함께 발견하는 작업, 공공의 건축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 또한 지역에서 건축하기 위한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황금종려상의 수상을 축하드리며, 우리나라의 건축계에도 조만간 프리츠커 건축상을 받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한 편의 시 _ 김영란 주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땅따먹기

이곳은 내 땅
저곳도 내 땅
내땅 내나라
내땅 내나라

어른이 된 지금
어릴적 고사리손으로
그려던 작은 내땅

작은돌 하나 튕겨
공간을 완성해 놓으면
이 넓은 곳이 내땅
곧 저곳도 내땅 되겠지

그 풍족함이 그리워지네

가설계의 바른용어는 기획설계입니다

건축상담과 기획설계는
유료입니다

건축사의 상담과 기획설계는 건축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